

뉴이스트 “달라진 일상, 우리 노래로 낭만 느꼈으면”

“뉴이스트만의 낭만적인 순간으로 이 앨범이 해석됐으면 해요. 이전과 많이 달라진 일상 속에 저희 노래로 조금이나마 낭만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민현)

그룹 ‘뉴이스트’가 낭만을 주제로 한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Romanticize)’로 돌아왔다. 그동안 미니앨범 등으로 팬들을 만나왔지만, 정규 앨범은 지난 2014년 발매한 ‘리:버스(Re:BIRTH)’ 이후 7년여 만이다.

뉴이스트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규 2집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밝혔다.

리더인 JR은 “정규 앨범으로 찾아뵙는 게 7년 만인 것 같다. 앨범을 준비하면서 필립과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멤버들과 오랜시간 준비하고 작업한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앨범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꿈꾸는 ‘낭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실제보다 더 낭만적으로(근사하게) 만든다’는 ‘로맨티사이즈’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뉴이스트가 평범한 일상들의 조각에 갇힌 비좁은 틀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눈길을 돌려 낭만을 꿈꾸는 순간으로 안내한다는 의미다.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은 이별을 앞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자신의 본심을 깨닫고 상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낸 곡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의 이동을 섬세한 가사로 표현했다.

백호는 “앨범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낭만을 생각해보고 힐링, 위로 등 여러 감정

7년만에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 쇼케이스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솔로곡 수록

아론, 건강 무리 않는 선에서 일부 활동

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한다”며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 변화가 계속 이뤄지는 곡이다. 많이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 각자가 생각하는 낭만이 다 다르더라. 각 멤버가 자신의 개성대로 잘 표현해줬다”며 “일상에서도 낭만적인 걸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민현도 “오랜만에 발매하는 앨범이다 보니 좋은 음악을 선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작업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담고 싶었고, 지금이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했다”며 “앨범을 낼 때마다 부담감이 있는데, 힘을 합쳐서 준비한 앨범인 만큼 부담감을 이기고 열심히 소통하며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전 앨범을 발매했을 때 멤버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백호가 중심이 돼서 프로듀싱을 맡았고 다른 멤버들도 단체곡뿐만 아니라 솔로곡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 노력했다”며 “7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는 ‘인사이드 아웃’을 포함해 총

10개의 트랙이 담겼다. 낭만의 주제에서 뺄 수 없는 사랑 이야기부터 멤버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솔로곡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민현은 한밤중 사색을 낭만적인 순간으로 여기는 감성을 담은 ‘이어폰(EARPHONE)’, 백호는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을 낭만으로 담은 ‘니드 잇(NEED IT)’, JR은 더 새로운 나를 찾는 것에 대한 모습 속에 낭만을 찾는 ‘돔돔(DOOM DOOM)’을 선보인다.

또 렌은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역동적인 낭만의 ‘로켓 로켓(ROCKET ROCKET)’, 아론은 뉴이스트 속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앙아’를 수록했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멤버 아론도 이번 앨범 활동에 유동적으로 참여한다. 아론은 지난 1월 심리적 불안 증세로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그간 건강과 컨디션 회복에 전념해왔다.

아론은 “최근에는 휴식하면서 지냈다. 활동과 관련해 회사, 멤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 의사를 제일 먼저 존중해주고 배려해줬다”며 “건강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활



동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랜만의 컴백이라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렌도 “아론 형의 빈자리가 많이 컸다”며 “이번에 형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거듭었다.

백호와 JR의 연기 도전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 백호는 뮤지컬 ‘태양의 노래’로 첫 뮤지컬에 도전한다. JR도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에 캐스팅됐다.

백호는 “첫 도전이라 떨린다. 사실 아직 막막하다. 실감이 잘 안 난다. 열심히 앨범 활동과 함께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R도 “좋은 기회로 드라마에 첫 도전하게 돼

행복하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잘해서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이스트는 지난 2012년에 데뷔해 올해 9년 차다. 내년엔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실감 나지 않는다”고 활동을 돌아봤다.

JR은 “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새롭고 설렌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건 모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활동을 잘 하자는 것이었다. 아론 형도 방송을 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다섯 명이 함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뉴시스



차태현X진영X정수정, ‘경찰수업’ 출연 확정

경찰대학교 배경으로 한 캠퍼스 경찰 수사극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은 배우 차태현, 진영, 정수정이 출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수업’은 경찰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캠퍼스 경찰 수사극이다.

차태현은 강력반 형사에서 사이버 수사대까지 각 부서를 돌며 20년 경력을 쌓은 경찰대교수 유동만 역을 맡는다. 노련한 연기력과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전배 젊은 베테랑 형사이자 경찰대 교수다.

진영은 극 중 해킹 현행범에서 경찰대 새내

기가 된 강선호 역으로 무색무취 캐릭터에서 점차 찬란한 색으로 물들어가게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영화 ‘내 인의 그늘’, ‘수상한 그녀’ 등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진영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주연 배우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포부를 전했다.

정수정은 가식도, 비밀도, 뒤끝도 없는 경찰대 신입생 오강희로 분한다. 심지가 단단하고 뾰족까지 정의로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 극의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경찰수업’은 오는 7월께 방송된다.

웨이브, ‘모범택시’, 시청 시간 3배 증가

‘펜트하우스’ 제치고 4월 셋째 주 드라마 시청 시간 1위 기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드라마 ‘모범택시’의 시청 시간이 전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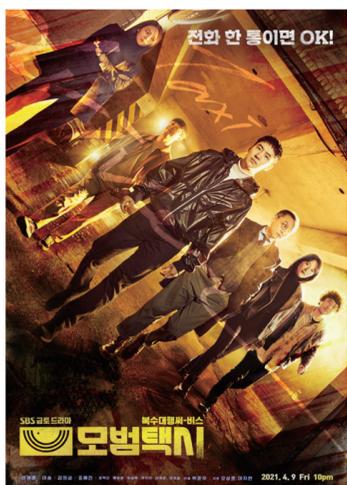
‘모범택시’는 방영 2주 차 만에 시청 시간을 3배 이상 끌어올리며 ‘펜트하우스’를 제치고 4월 셋째 주 드라마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던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1위 행진은 막을 내렸다.

이번 ‘모범택시’의 시청 시간 상승세는 약 반년간 주간웨이브 차트에서 신기록을 세웠던 ‘펜트하우스’와 비교해볼 때 의미가 더욱더 깊다. ‘펜트하우스’ 시즌 1은 방영 2주 차에 전주 대비 시청 시간이 2배 증가했고, 시즌 2는 1.5배 증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욱 가파르다.

TV 시청률 또한 4회까지 수직 상승 중이다. 가장 최근 회차인 4회에는 15.6%를 기록하며 ‘펜트하우스’의 바통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았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이밖에 드라마 ‘대박부동산’은 14일 첫 방과



동시에 4월 셋째 주 드라마 차트 3위에 안착했다.

트와이스, 美 TV쇼 ‘켈리 클락슨 쇼’ 첫 출연

오는 27일(현지시간) 오후 2시 방영

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NBC의 유명 TV 쇼 ‘켈리 클락슨 쇼’에 첫 출연한다.

2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오후 2시 방영되는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다.

‘켈리 클락슨 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인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인기 토크쇼다. 닉 조나스, 두아 리파, 존 레전드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했다.

트와이스는 이번 방송에서 글로벌 히트곡 ‘크라이 포 미(CRY FOR ME)’ 무대를 펼친다. 이 곡은 지난해 12월6일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서 처음 공개된 뒤 같은 달 18일 정식 발매됐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20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 2위 등 호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1월2일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정상에 차지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프로듀서 박진영과 그래픽 수상 이력도 록 밴드 원리퍼블릭 멤버 라이언 테디 등이 의기투합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1월29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타임100 토크(TIME100 Talks)’에서 정규

2집 수록곡 ‘디펜드 유’를 가장하는 등 글로벌 활동을 늘리고 있다. 오는 5월12일에는 일본 새 싱글 ‘쿠라 쿠라(Kura Kura)’를 발매한다.

또 6월 국내 새 앨범을 발매한다.

김병만 “파일럿 자격증 따기까지 3년 필기시험만 31번”

코미디언 김병만이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파일럿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김병만은 20일 새벽 방송한 SBS ‘나이트라인’에서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발기 프로펠러 자격증이다. 프로펠러가 하나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프로펠러 2개짜리는 새로 공부해서 또 필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파일럿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는 2017년 스카이다이빙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

에 입원하던 때였다.

원래 비행에 대한 꿈이 있던 그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겁사리 도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때 내가 못했던 그 공부를 하자!” 하고 다짐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 자가용부터 사업용, 대기비행과 무선통신까지 3년 만에 모두 통과했다. “시험 하나 통과하면 정글 다녀오고, 오는 비행기에서 공부해 시험을 또 보고” 하는 패턴으로 3년 간 필기시험만 31번 봤다.

그에게 도전이란 “하나하나씩 제가 이루어가는 어떤 성취감”이다. “정글의 법칙을 10년 가까이 가면서 말했으므로, 족장이라는 캐릭터로서” 모두에게 신뢰를 주려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틀나는 시간대로 배우다 보니 성취감에 빠져서 과연 내가 이것도 도전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비행기까지 도전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활주소에 저의 랜딩 기어를 한번 담아보는 것”이라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오아이, 4년4개월 만에 뭉친다...다음달 4일 라이브방송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I.O.I)’가 4년4개월 만에 다시 뭉친다.

20일 스윙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오아이는 오는 5월4일 오후 7시 데뷔 5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I.S.I - 예스, 아이 러브 잇(Yes, I love it!)’을 개최한다.

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라이브 방송이다. 특히 아이오아이의 공식 인사였던 ‘예스, 아이 러브 잇’을 타이틀로 내세워 의미를 더했다. 아이오아이는 지난 2016년 앨범 ‘프로듀스

101’ 시즌1을 통해 결성했다. 2017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멤버들의 소속사가 달라 시작부터 1년 한시적인 활동이 예고됐고, 예정대로 해체했다. 이후 몇 차례 재결성이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마지막 활동 당시 ‘5년 후에 재결합하는 약속을 남겼는데 이번엔 성사됐다. 라이브 방송은 kt 올레tv, 시즌(Sezn), 티빙(TVING)을 통해 무료로 생중계된다.

